

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약 250만?!

청년주거정책 대상 규모는?

국토연구원

데이터로 살펴본 청년 주거정책 대상 규모에 대해 알아볼까요?



연령기준 / 규모

첫째, 법령 등에 따른 청년 연령기준과 규모를 살펴볼게요.

연령기준 / 규모



[출처] 통계청 인구총조사, 2018년 연령 및 성별인구

19세 이상 34세 이하 약 1,096.4만명, 19세 이상 39세 이하 약 1,507.1만명으로 조사됐어요



분가·동거 비율

둘째, 연령대별 청년의 혼인 및 부모와 분가·동거 비율을 살펴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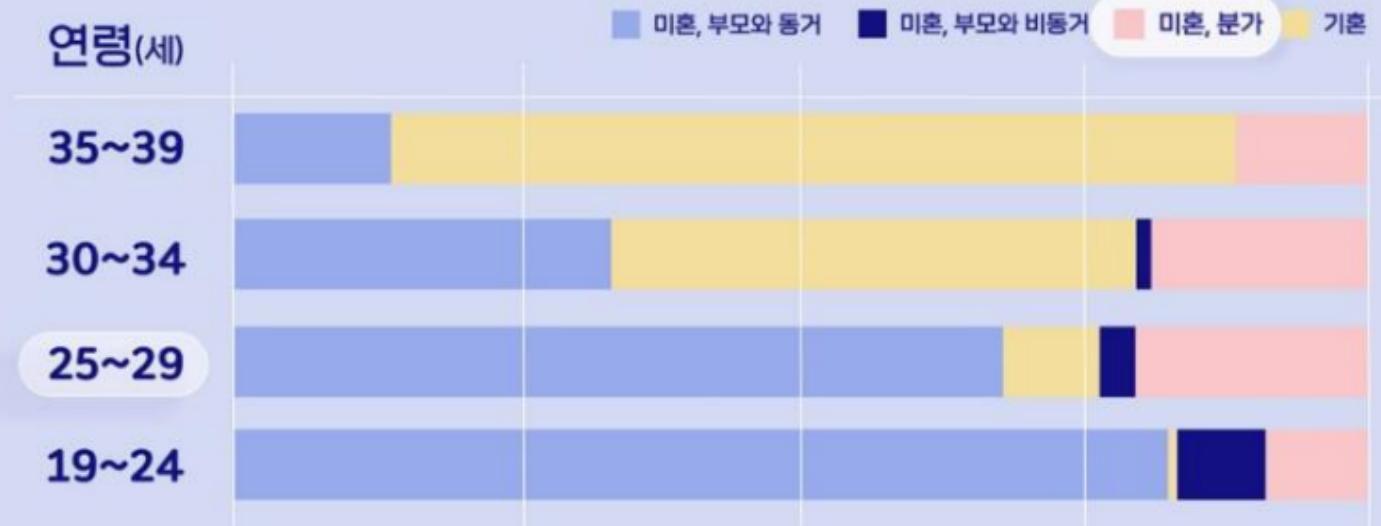
***분가**

원가구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, 따로 떨어져 사는 관계가 지속적인 상태

***비동거**

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학업,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
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상태

분가·동거 비율



[출처]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차년도(2018년)의 가구 및 개인데이터 분석

기혼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, 분가한 청년 비율도 25세~29세 이후엔 점차 줄어들어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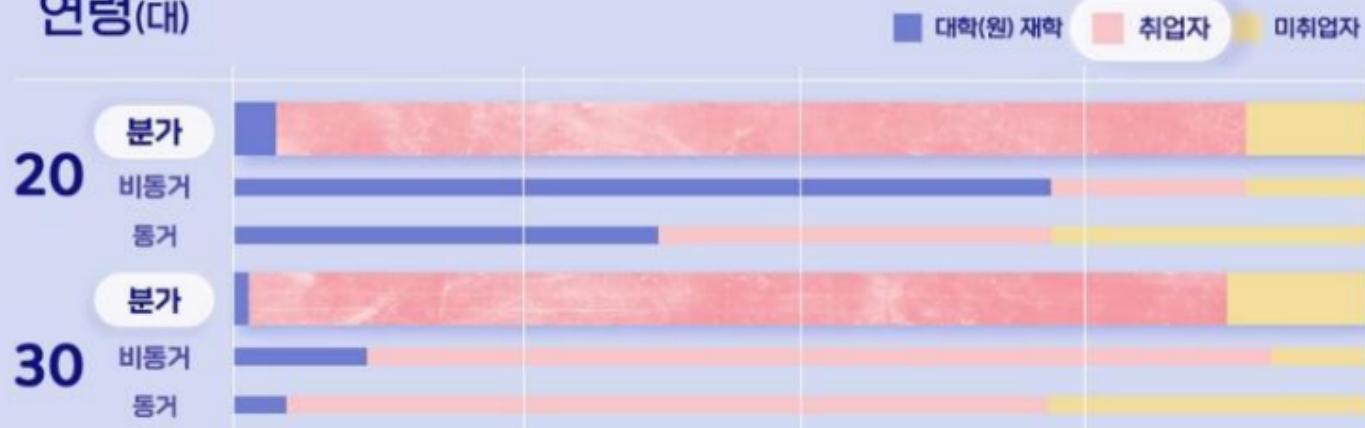
학업·취업 상태

셋째, 미혼 청년의 분가, 동거 여부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상태에 대해 알아봅시다

학업·취업 상태

87.8% ~ 88.9%

연령(대)



[출처] 한국노동패널조사 제21차년도(2018년)의 가구 및 개인데이터 분석

그리고 20, 30대 청년 중 분가한 미혼 청년의 87.8~88.9%는 취업 상태입니다



청년 주거정책 대상

마지막으로, 혼인·분가 여부에 따른 청년 주거지원 정책 대상을 살펴볼게요

청년 주거정책 대상

청년 연령기준 19세~39세 이하, 미혼

부모와
비동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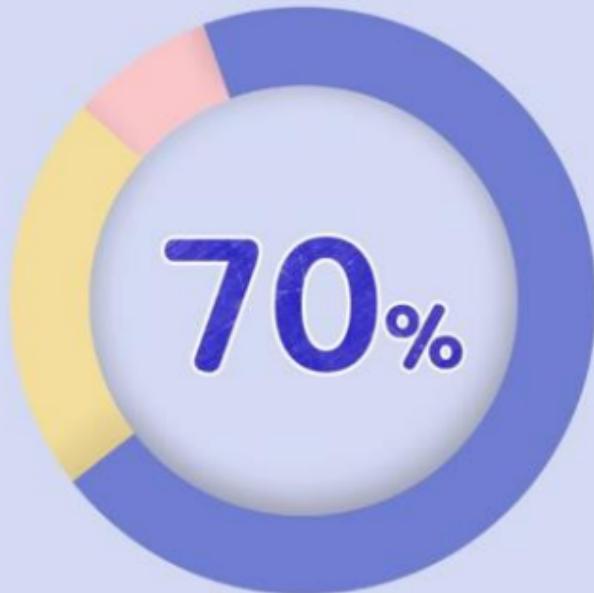
부모와
분가

'부모와 분가하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'을 합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

청년 주거정책 대상

청년 연령기준 19세~39세 이하, 미혼

부모와
비동거



대학(원) 재학
32.9 만명

취업자
6.7 만명

미취업자
3.7 만명

20대 청년이 33만 명으로 약 70%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

청년 주거정책 대상

청년 연령기준 19세~39세 이하, 미혼

부모와 분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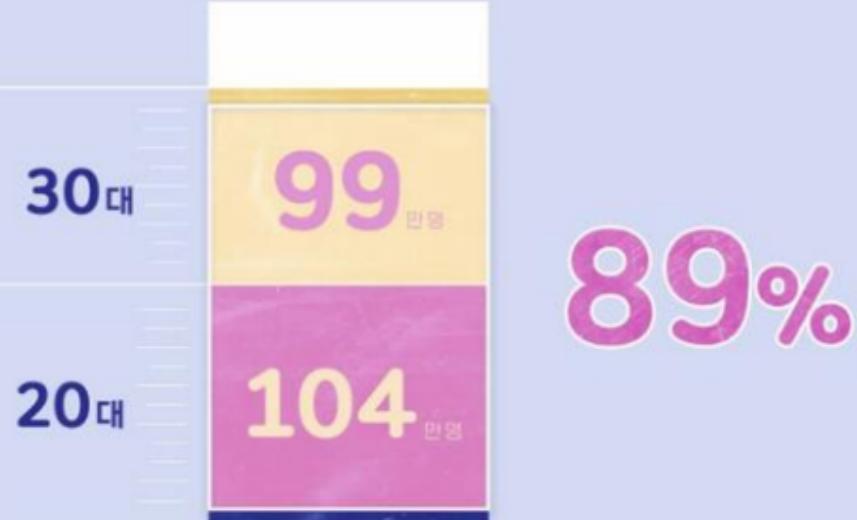


연령대는 20대가 104만 명, 30대가 99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

청년 주거정책 대상

청년 연령기준 19세~39세 이하, 미혼

부모와
분가



그 중 취업자가 89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



“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‘**국토TV**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0gN8lFykfFoD4EmpO3RuFg>

지금까지 데이터로 살펴본 청년 주거정책 대상 규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